



2023.12.

VOL. **342**



DECEMBER

12

열린신문

Yullin Newsletter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는 1993년 12월 12일, 방배2동의 작은 지하실에서 설립되어 1998년 10월에 방배동 예배당으로, 2002년 4월에 평촌 현 예배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열린교회의 비전은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 참된 목양, 체계적인 양육과 훈련을 통해 참된 신자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열린교회의 이름은 요한계시록 3장 7절~8절에 근거한 것으로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늘을 열어 주신 교회"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열린신문>은 8면으로 이루어졌으며, 열린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열린교회는 본 신문을 매개로 외부성경공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발견하신 분은 1661-4372로 제보 바랍니다.

📖 말씀술루선

눈물이 은혜에 담길 때

요즘은 농사지를 씨앗이 없으면 간편하게 종묘사에 가서 사면 됩니다. 그런데 옛날 농부들은 그해에 수확한 곡식 가운데 좋은 것을 종자로 남겨놓아야 했습니다. 집안에 식량이 바닥나도 그 씨앗은 손을 대지 않고 소중하게 보관했습니다. 파종할 시기가 되면 그렇게 애지중지 보관한 씨앗을 가지고 들판에 나가서 정성껏 심었습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농사짓는다는 것은 씨앗 하나를 단순하게 땅에다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식물들의 생명을 심는 것입니다. 뿌린 씨앗에 적당한 비가 오지 않으면 자기의 눈물로라도 그 씨앗이 싹을 맺고, 햇빛이 나지 않으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열매 맺기를 바라는 비장한 마음으로 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농부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라고 표현합니다(시126:5).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다름아닌 저와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하루의 삶입니다. 우리도 하루하루를 고단하게 살아보지만 열매로 돌아오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일이 보증되지 않은 오늘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통장에 돈이 모이지 않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나, 내년에는 더 힘들어질 텐데... 앞날을 생각하면 소망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열매 맺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지속될 것이라는 확실성도, 소유한 재물이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는 명확성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똑같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인생길을 걸어간 시편 126편의 시인은 어떤 마음으로 씨를 뿌렸을까요? 그가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땅에 심으면서 의지했던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땅에다 심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모한 배팅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지켜주시고 현재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증 삼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땅에 심으며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를 위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나온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현재의 고난이 단지 고통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픔과 어려움은 나에게 또 한 번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이라고, 훗날 오늘을 되돌아보면 이것도 역시 은혜의 재료가 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눈물을 흘릴 때도 많고 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눈물과 울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에 담으십시오. 우리의 눈물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기쁨으로 거두게 되고, 우리의 울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면 기쁨의 곡식 단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됩니다(시126:5~6). ✨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 발행인 김남준 편집인 진광희 편집부 열린교회행정센터 편집주간 류요한 디자인 디자인집 (02)521-1474

주소 1405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39번길 31 전화 1661-4372 팩스 (031)421-9411 e-mail yullin@yullin.org URL www.yullin.org

 열린교회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아기 예수가 전하는 참된 위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일 3:8下)



들어가는 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보잘것없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는 죽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은 오직 피조물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예수께서 태어나시던 날 나타난 천사는 들에 있던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눅 2:10-11). 천사는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은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는 것, 아프던 몸이 건강해진 것, 나뻐던 인간관계가 회복된 것 등일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괴롭히던 그 모든 문제를 뿌리부터 고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는 것, 몸이 아픈 것, 인간관계가 깨어진 것은 모두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입니다. 그것들은 공통된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해결하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죽어 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것을 더욱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생명과 풍성한 삶

요한복음 10장만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더 분명하게 알려주는 구절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10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육신은 살아 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었습니다. 죽은 영혼으로 죽은 행실을 쏟아내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히 6:1).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어 있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죽으심으로써 죽어있던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진노를 받던 사람들을 돌이켜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눅 15:7).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 그 이상의 것을 주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풍성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어 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뿐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 안에서 황폐하던 우리의 인격은 아름다운 인격으로 변화됩니다. 전에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전에는 고난이 오면 사람들을 원망하였는데 이제는 기쁨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됩니다. 고난을 이기며 살 뿐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고통과 미움, 원망과 절망 속에서 죽는 대신 기쁨 속에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심

그런데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았으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갑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약속된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구원받은 자라도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하려고 끊임없이 애쓰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려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되고, 그러면 풍성한 삶을 살 힘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때뿐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야 합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그분이 이루신 일을 묵상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천사가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죄 문제를 해결하여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

구원받은 후에도
마귀의 꾀계를
깨어서 대적함으로
이미 약속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특별히 감사하고
이웃에게 전하는
성탄절이어야

”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사단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 용서함 그 이상입니다. 어두운 마귀의 꾀계가 무성한 이 세상에서 그것들을 꺾고 승리하여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탄절에 되새기는 사랑

구유에 누운 아기 예수는 그분을 통해 펼쳐



질 위대하고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는 첫 번째 표징입니다. 우리는 강보에 싸인 아기 예수에게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실 것, 그리고 언제가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한 통치를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을 봅니다. 그 모든 역동적이고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가 바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면서 그분 오신 날을 즐거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이 날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여야 합니다. 인간은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음을 이 성탄절에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말과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을 실제로 경험할 뿐 아니라 그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맺는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됩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괴롭히던 궁극적인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른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자신들을 로마에서 건져내고, 물질적인 축복을 줄 세속적인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나에게도 참된 위로가 되는지 돌아보는 성탄절이 되길 바랍니다. ☆

주요사역

3일(주일) 장년교구 총회(2,3,5교구, 청년부)
10일(주일) 창립기념주일
19일(화)~21일(목) 교역자 수련회
19일(화) 전도대원의 날
20일(수) 릴레이기도 헌신자 모임
23일(토) 성탄축하행사
25일(월) 성탄절 예배
28일(목)~30일(토) 청년부 기도연주회
31일(주일) 송구영신예배

창립기념주일

세대가 가고오는 때에 생각하는 열린교회의 정체성



1993년 12월 12일에 방배2동의 작은 건물 지하실에 위치한 예배당에서 첫 예배를 드린 열린교회가 30번째 생일을 맞이하였다. 그 해 태어난 아기가 서른 살의 성인이 될 수 있는 세월이니 그 긴 시간 동안 예뻐예셀의 하나님께서 이렇듯 교회를 신실하게 지켜주셨다. 열린교회는 두 번의 이전을 거쳐서 2002년에 현 예배당에 정착한 이후 개혁주의에 입각한 바른 교리를 전파하는 지역교회로서의 사명과 글로벌한 보편교회로서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왔다.

교회의 성장과 함께 다양한 사역들이 가지처럼 뻗어나왔지만, 교회 설립시부터 열린교회의 정체성은 예배와 함께해 왔다. 열린신문에서는 교회적 이슈를 대할 때 그것과 관련한 교회의 처신을 통시적으로 살펴보는 형식으로 다루어 왔다. 이것은 초기 교회를 현재 교회가 따라가야 할 무조건적 모범으로 제시하기 위함은 아니지만, 세월을 따라 앞만 보고 오다 보니 외형은 남았는데 어느 새 알맹이는 잃어버리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성찰할 수 있는 단서를 찾기 위함이다.

본호에서는 초기 열린교회의 예배 중 기도와 찬양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기록된 기사(열린신문 151호, '열린교회, 그때를 아십니까?' 5번째 중)를 발췌하여 전달한다. 리더십 변환기라는 엄중한 시기에 놓여있는 교회가 '예배의 감격이 있는 열린교회'의 정체성으로 마음이 수렴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편집부)

지하실 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성도 수가 많아져서 예배당이 계속 확장은 되었지만, 예배 시간이 나뉘지는 않았다. 주일 오전 9시에 주일학교 예배가 본당에서 있었고 장년 예배는 11시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예배는 오후 3시에 있었기 때문에 각 예배는 다음 예배 시간에 쫓겨서 바쁘게 끝낼 필요가 없었다.

이런 여유로운 요건들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의 자유로움에 크게 기여하였다. 예배 인도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분별하면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예배를 이끌어 나갔다. 두 시간 간격으로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는 지금과 비교해서 이런 자유로움이 크게 드러난 순서는 찬양과 기도였다.

그 때의 찬양은 찬송의 수나 종류가 미리 정해지지 않았다. 물론 특별한 절기에는 그 절기에 맞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렸지만, 보통 주일에는 그때그때 찬송드릴 곡이 그 자리에서 정해졌다. 찬양은 설교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길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기경시켜주기 때문에 마음이 녹을 때까지 충분히 드려졌다. 찬양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 곡의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한 곡의 찬양을 여러 번 올려 드리기도 했으며, 어떤 때는 한 절을 반복해서 찬송하기도 했다.

예배 중에 드렸던 기도가 지금과 다른 점은 대표기도가 없었다는 점이다. 찬양이 끝나면 예배 인도자를 비롯한 모

든 회중이 다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다. 일주일 동안 살았던 모습을 회개하며,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꼭 만나 주시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예배의 자유로움이 더 드러난 기도는 설교 전에 하는 기도보다 말씀선포가 끝난 직후에 하는 기도였다. 사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는 하지만,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말씀에 은혜 받고 난 직후에 하는 기도가 높은 세계로 솟구치듯이 탄력을 받는다는 사실은 우리의 경험이 증거해 주는 사실이다.

설교에 은혜 받은 절대 양을 물리적으로 측정해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한 작업이겠지만, 어쨌든 열린교회 초기 성도들은 말씀 하나에 목숨을 걸고(?) 모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컸고, 가난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열린교회에 와서 말씀에 은혜 받기보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보고 도전받은 분들도 있었다.

그렇게 갈망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셨다. 그래서 특별히 사경회나 수련회 설교가 아닌, 보통 주일의 설교에도 말씀이 선포된 직후에 하는 성도들의 기도는 매우 간절하고 길게 이어졌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것이 오후 예배일 경우에는 종종 그 이후의 예배 순서를 진행하지 않고 각자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짧은 광고와 함께 예배당의 불을 꺼서 성도들이 깊은 기도의 세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도 했다. ☆

포토에세이

사진: 김범무(장년6교구)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호세아 6장 3절

고3블레싱기도회



2023년 11월 12일 주일 오전 11시 10분에서 약 30여 분간 세빛빌딩 4층 고등부실에서 <고등부 공동체가 함께하는 고3 블레싱 기도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고등부 교사 34명, 고3 학생(30여 명) 포함한 고등부 12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매년 수능시험을 앞 둔 주일에 고등부 공동체의 기도회는 있었던 터이지만 이번에는 김성진 목사님과 장로님들께서 함께 자리를 해 주셔서 수험생 친구들을 특별히 격려하고 축복해 주시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찬양의 시간을 가진 후 박정갑 장로님의 격려사, 김성진 목사님의 권면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김성진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수능 시간과 그 이후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흥해처럼 두려움 앞에서 있는 시험이 오히려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셔서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러지는 시간이길, 그래서 수능을 마치고 나면 그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산 강도사님 인도하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시험에 대한 압박감을 극복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게 하소서/공부하는 매 순간 집중

력과 사고력과 이해력을 더하여 주셔서 부족한 과목을 잘 보완하고 잘하는 과목은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수능 당일 최상의 컨디션을 주셔서 한 문제 한 문제 집중해서 풀고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학, 취업 현장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소서” 내용을 기도하였습니다. 이어서 후배들의 따뜻한 박수 및 격려의 선물과 고등부에서 준비한 간식을 전달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11월과 12월은 한 해를 정리하는 기간이면서 결실을 맺고 확인하며 평가하고 다음 해를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특히 고3 친구들이 얼마나 올 한 해를 분주하게 보내며 불안이나 긴장감으로 수능일을 맞이했는지 마음이 찡합니다. 이번 블레싱기도회가 고3 친구들에게 크로노스 시간 속에 익숙하고 기계적인 세상의 목적으로 흘러갔던 시간을, 다시 눈을 들어 하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2023년 최선을 다하고 수고한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넘치길 바라며 카이로스 시간을 은혜가운데 늘려가는 인생길을 가기를 축복해 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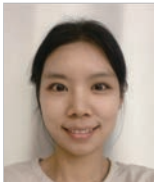
이영현 고등부교사 ooeoee@hanmail.net

예비영아학부모설명회 후기

엄마는 너희들 섬기는 게 정말 기뻐!



권화영 장년4교구
acekwonhy@naver.com



첫째 아이 돌 무렵은 창궐한 코로나로 인해 현장예배를 드릴 수 없던 때라 예배에 대한 갈망은 더욱 커졌지만 저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아쉽게도 첫째 아이는 영아부에서의 두 번의 예배를 끝으로 유아부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째가 태어나면 무조건 영아부부터 주일예배에 적응시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둘째 아이와 자모실에서 드린 첫 예배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유식을 먹이면서 기저귀를 갈며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라시는 귀한 예배였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의 모든 부분을 챙겨줄 수 없기 때문에 가정과 가장 가깝게 협력할 수 있는 교회학교의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설교 말씀과 교육, 선생님들의 따뜻한 섬김, 엉덩이를 찔룩거리며 기쁘게 찬양하는 교회 친구들과의 교제,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영아부에서의 예배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전도사님의 정확하고 쉬운 설교말씀은 이제 막 말문이 터진 아이들이 받아들이기에 좋았습니다. 현란한 도구로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도 있지만 전도사님께서 직접 성경을 펼치시고 성경구절을 찬찬히 읽어주신 후에 설교하시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또한 예배에 집중하기 힘든 아이들을 품에 안고 옆에서 섬겨주시는 선생님들을 통해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느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이번 세빛교실 학부모 교사로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섬기면서 알게 된 것은 전도사님, 선

생님들께서 체계적인 신앙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연구하시고 눈물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쁜지 저의 아이는 요즘 성경책을 펴고 전도사님의 “말씀 속으로 속~!” 구호를 외치며 교회학교에서 배우고 느낀 것들을 나누며 행복한 예배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모실에서의 예배가 육아로 지친 나의 상황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였다면, 아이를 영아부에 보낸 후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숙고하게 해줍니다. 먼저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나의 죄 뉘를 아파하시고 책망하시지만 그런 저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통해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게 하시니 가정을 위해 하는 모든 행위가 고생이 아니라 섬김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섬김으로 그분의 목숨까지 나에게 내어주셨고 그 사랑에 동참하도록 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하셨음을 믿게 됩니다. 요즘 저는 아이들에게도 “엄마가 너희들 섬기는 게 정말 기뻐!”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책에서 ‘성화’의 정의를 읽을 때면 나의 삶에서 잘 느껴지지 않아서 ‘과연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가?’라는 생각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양육하면서 성화의 삶이 저의 삶의 영역에서도 적용되어 그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앞으로 아이의 예배를 바로 세우기 위해 4가지를 기도합니다. 첫째,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면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기도하는 아이의 모습, 성경이 다소 어렵지만 말씀을 듣고 나누어 보려는 노력들이 하나님 앞에 조금씩 온전한 가정의 모습으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둘째,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가정예배가 성령 안에서 지속되고 정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되어 가정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 하는 것인가?” 하다가도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형식보다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드리는 가정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요즘은 가정예배가 정착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셋째, 성경적 세계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더욱 공부하는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세상적 지식의 한계를 깨닫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며 아이들이 배우고 느끼는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잘 설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넷째, 주일을 잘 지키고 교회학교의 신앙교육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겠습니다. 회심집회, 사경회, 세빛교실은 영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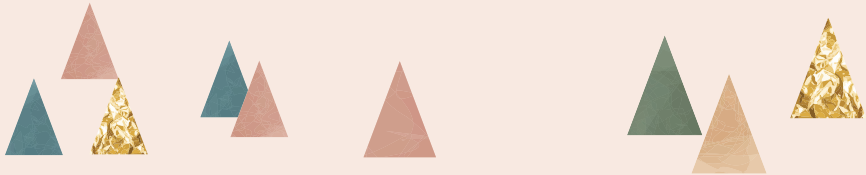
무엇보다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통해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출발을 알리는 시점에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의 권위가 건강하게 아이에게 전달되고 아이가 처음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통해 잘 흘러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11월 5일에 예비 영아 학부모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본 설명회는 영아부 공동체와 예비 영아 학부모가 신앙의 동역자로 세워져가는 시간입니다. 영아부에서 주관하여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진행하며, 12개월 미만 영아의 가정에게 영아부 예배와 영아부 교사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부모님께서 영아들을 예배에 보내기 전에 준비해야 할 부분을 안내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부모님들은 아이의 첫 교회학교 부서를 미리 만나고 앞으로 아이의 신앙 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공유하며 영아부 신앙공동체로 한걸음 가까이 다가갑니다.(영아부)

기도세미나 후기

기도, 두 가지 연합의 비밀



교구 전도사님은 얼마 전 “적어도 하루 한 시간은 기도해야 은혜의 강물에 푹 잠기는 경험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신앙의 세계를 열 수 있다”고 강조하셨다.

전도사님의 권면 이후 하루 한 시간 기도를 지키려 노력해 보았지만 습관이 되지 않아서인지 어려웠다. 아니, 한 시간은 고사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 그래도 말씀은 소리내 읽다 보면 어느새 깊이 빠져 집중하게 되는데 기도는 그렇지 않았다. 불규칙한 기도생활을 청산하고 기도 습관을 들이고 싶다는 절박함으로 기도 세미나에 참석했다.

평일 오전임에도 많은 성도가 모였고, 모인 우리는 하나

님 앞에 진지했고, 간절했고, 열린교회 공동체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 세미나는 찬양으로 시작되었는데 첫 찬양부터 마음이 뜨거워졌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감사했다. 말씀은 정창욱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다. 요한1서 3:21-24과 사도행전 1:14, 2:42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에 대해 설교하셨다.

목사님은 “신자에게는 2가지 연합(코이노니아, 한글성경에서는 ‘사귄’으로 번역)이 모두 있어야 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연합이고, 두 번째가 성도 간의 연합이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연합을 누리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표식이 바로 ‘기도’이고, 성도 간의 연합을 누리는 가장 특이하고도 특별한 표식 또한 교제에 포함된 ‘기도’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또, 어려운 고난의 때일수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열린교회에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열린교회를 다시 거룩하게 하려고요. 거룩이 왜 중요하구요? 거룩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죠. 거룩해야 교회가 교회답게 서지요. 거룩해야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죠. 거룩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움을 주신다는 겁니다.”라고 외치셨다.

목사님은 두 번이나 강하게 “열린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라고 물으셨고, 한 권사님이 울먹이며 “우리 주님이요.”라고 답하셨는데 우리 모두 마음 속으로 같은 답을 했

북한선교세미나 후기

내 동족이 빈한하여 곁에 있을 때



김재환 장년2교구
idkjh01@naver.com



“북한 선교 세미나가 다음 주 주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관심 있는 분은 연락 주세요. 장소는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10월 말 경에 목사님으로부터 북한 선교 세미나 안내 단체톡 공지를 받았다. 장소를 개별적으로 안내? 강사는 누구시지? 게다가 아직 장소도 안 정해졌다고? 신청자가 적어서 인원에 맞춰서 준비하시려나? 다양한 궁금증을 품고 세미나 신청 설문을 작성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모두는 선교사님을 보호하기 위한 교회의 배려였다.

이번 세미나는 북한 선교에 대한 우리나라 기독교계의 정책과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과 안내가 아니었다. 실제 북한과 중국을 오가며 북한 주민들의 삶과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께서 북한 시민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자리였다.(선교사님의 안전을 위해 그분의 이름과 직접적인 헌신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 김 선교사님(가명)을 향한 하나님의 콜링과 이후 사역에 대해 들으며 불과 2시간 여 시간이었지만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나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부르심도 다시금 상기하게 된 시간이었다.

약 15년 전쯤이었을까? ‘탈북 학생과 함께하는 탈북 학생 지원 교사 연수’를 통해 1박 2일 동안 북한의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 듣고, 탈북 학생과 한 방에서 함께 숙박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북한에서의 삶과 탈북 과정에서 겪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초를 들으며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워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탈북 이후 학생들은 물론 성인들도 남한에서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며, 심지어 다시 북한으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더욱 마음이 안타까웠다.

1950년 6.25 전쟁 이후 반세기 동안 서로 총부리를 겨누던 한 민족 두 나라의 정상들이 밀레니엄 시대를 맞아 2000년, 2007년에 이어 2018년에는 한 해에 두 번씩이나 만나는 화해의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당시 기독교계에서는 1950년을 기점으로 또는 1953년을 기점으로 70년 바벨론 귀환과 같은 역사적인 일이 2020년 경에 한국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있었다. 이러한 염원을 품고 2019년에 나는 안성이

라는 낯선 지역으로 학교를 옮겼다. 통일 교육의 전초 기지 역할을 하고 있던 안성에서 근무하며 통일 이후를 준비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20년 갑작스런 코로나 사태와 이후 정치적 상황의 변화로 남북한의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고 탈북 행렬도 거의 끊기다시피 되어 버렸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개최하는 북한 선교 세미나는 개인적으로 매우 기대가 되는 소식이었다. 현재 북한 상황은 어떠한지, 북한 지하 교회는 과연 어떤 상태인지, 북한 선교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매우 궁금한 마음을 품고 세미나 장소로 향했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선교사님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구체적으로 선교사님의 사역을 언급하기는 어렵다.)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쩔 수 없이 마음을 열고 대기업 직장을 모두 내려놓고 북한 선교에 매진하기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선교사님의 고백과 간증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넘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했다. 늦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같았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다.

선교사님의 직장 생활은 북한을 드나들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었다. 그리고 생명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위급하고 중대한 문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셨다. 다른 정치인, 경제인들에게는 북한과의 교류가 모두 막혔지만 선교사님께서는 북한을 마음껏 오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과 함께 일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 북한 선교에 대한 세미나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일반적인 화살 기도 요청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번 세미나는 선교사님께서 직접 본인이 촬영한 실제 북한 주민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 주셨다. 우리나라 60년대를 떠올리게 하는 학교와 병원 시설들, 유치원생도 아직 안된 듯한 아이들이 ‘친애하는 김정은 위원장님의 은혜’를 부르짖으며 노래하는 모습들, 나이는 초등학교 5~6학년이라고 하는데 키는 우리나라 유치원 수준 정도밖에 안되는 아이들 사진을 보며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다. 북한이라

는 사회는 김일성 일가를 위한 노예제도 사회라는 어느 탈북민의 울부짖음이 들리는 듯했다.

이 체제는 너무나도 오랜 기간 공고히 지속되어왔기 때문에 북한 내에서의 선교는 물론이고 이미 남한에 내려온 탈북민을 상대로 하는 전도 또한 매우 어렵다고 하셨다. 그들에게 김정일 일가는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순진한 마음으로 전도를 하려고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상처를 받고 나가 떨어지기 십상이라는 말씀도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을 해야만 한다고 강조하셨다. 해외에서 동일한 북한 현실 사진과 동영상 보여주면 동포가 아닌 외국인들도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하면 북한을 도울 수 있겠냐는 질문이 쇄도한다는데, 유독 남한에서 그리고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동포를 상대로 하는 북한 선교 세미나에서는 그런 반응을 볼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도 하셨다. 본인은 지금 북한 선교를 위한 모금을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고 하셨다. 북한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하셨다. 레위기 말씀이 떠올랐다. “네 동족이 빈한하게 되어 빈 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거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레 25:35).”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한 어린 아이의 눈빛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구릿빛도 아닌 검게 그을린 얼굴에 원망과 분노와 왜 그런 자신을 찍느냐는 불만에 가득찬 눈빛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 어린 나이에 그러한 눈빛을 가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지나왔을까? 전쟁이 아니었다면 그런 눈빛을 가진 아이로 자라났을까? 아니,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만 태어났어도 그런 눈빛을 가지게 되었을까? 선교사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남북한이 빨리 통일이 되어 북한 주민들이 하루 빨리 북한 정권 하에서 벗어나기를, 더 나아가 북한 땅에 복음이 전해져서 육적 노예 생활은 물론 영적 노예 생활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길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를 넘어서 복음을 먼저 받은, 그리고 한 민족으로서의 의무 사항이다. ☆



을 거라 생각한다. 김성구 목사님 인도로 이어진 기도회에서 우리 모두는 한마음으로 열린교회 공동체를 놓고 뜨겁게 기도했고, 조희숙 전도사님의 기도 사역 설명과 기도 섬김 신청서를 작성하는 결단의 시간까지, 세미나는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다.

하나님은 은혜의 자리에 순종하며 나온 것만으로 내게도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고, 바쁜 일상이지만 교회와 나라를 위해 릴레이 기도로 섬기고 싶다는 뜨거운 열망도 주셔서 기도 섬김 신청서를 작성하며 결단케 하셨다. 기도 세미나 이후 하나님께 결단한 대로 금요기도회 참석 후 교회에 남아 한 시간 릴레이 기도를 실천하는 중이다.

기도 세미나를 통해 전혀 몰랐던 우리 교회 기도 사역에

대해 알게 되었고, 신자에게 있어 기도는 호흡과도 같아서 끊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활기차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개인 기도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참석한 기도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은 공동체적 기도를 열망하도록 마음을 바꾸셨다.

코로나 이후 다시 열린교회에 나오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교회를 떠난 나를 위해 여러 분들이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한 기도 덕분에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음에 감사했다.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심에도 기도의 응답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한다. 그동안 여러 분들의 기도 섬김으로 이만큼이

나마 신앙을 지켜왔으니 덕을 입은 빚진 자로서 이제는 내가, 기도로 섬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어제로 2024 신입제직 3주차 교육을 마쳤다. 어떤 자리에서 섬길지 고민 중인데 기도 섬김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 볼 생각이다. 다락방에 모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끈덕지게 기도했던 사도행전 사도들과 여자들처럼(행 1:14), 사도의 가르침(말씀)을 함께 받고, 서로 교제하며 교제 속에서 공동체적으로 기도했던 초대교회 신자들처럼(행 2:42), 우리 열린교회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연합하고, ‘기도’를 통해 성도 간 연합이 풍성해지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본다. ☆

신주현 장년6교구
shinjoonara@naver.com



강도사인허 후기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자 되길

지난 10월 10일에 강도사 인허식이 있었습니다. 올해 초, 총 3년의 신대원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강도사고시도 무사히 통과하여 이제 강도사 인허를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축하받고 강도사 인허증을 받으니 이제 정말 목회의 길이 시작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시작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하고 준비가 덜 되었는데 강도사 인허를 받아도 될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들어쓰셔서 저에게 강도사라는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뿐입니다.

강도사 인허식은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심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목회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나 자신이 최고인 줄로 알았고, 인생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선교단체 여름수련회에 우연히 가게 되었고, 저녁 집회 때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그날만큼은 저의 귀에 강력하게 들렸습니다. 말씀을 통해 저의 깊은 죄악을 고백하게 되었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경주자(교역자칼럼)2

‘강강강강’ 섬김 앞에서

뜨거운 여름, 열린교회에 첫발을 내딛고 어느덧 쌀쌀한 겨울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6월 중순부터 영아부 선생님들을 한분 한분씩 만나기 시작하며 7월 2일 주일, 공식적으로 열린교회 성도님들께 영아부 전도사로 부임 인사를 드렸습니다.

돌아보면 5개월 동안 참 많은 사역이 있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시작한 7월의 여름성경학교, 8월 온가족 여름수련회, 9월 세빛교실, 10월 가을말씀사경회, 11월의 예비영아부설명회까지 말이죠. 여느 교회학교에서의 연중 가장 큰 사역은 여름성경학교입니다. 그런데 열린교회에서는 여름성경학교 정도의 비중 있는 사역이 매달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처음 열린교회에 와서 든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와! 사역이 ‘강강강강’이구나! 신체의 리듬도 ‘강약강약’이 있는데, 내가 과연 이 사역들을 해낼 수 있을까?’ 많은 사역 앞에서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나를 단련시키셨는데, 이번에는 내가 더욱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3가지를 꼭 명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첫 번째, 새벽에 기도하자. 두 번째, 말씀 앞에 서자. 세 번째, 운동하자. 내 영혼과 육체가 강건해야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영아부 사역에서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말뚝말뚝한 눈망울의 영아들이었습니다. 분명 36개월도 안 된 아이들인데, 아이들은 너무나 바른 자세로 호기심 가득한 반짝반짝한 눈동자로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아이들의 집중하는 모습에 제가 빨려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

말씀의 강력한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수많은 사람을 보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 마음에 공허함이 가득한 사람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자로 저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시 것처럼, 그들에게도 말씀을 전할 자가 필요하셨습니다. 거룩한 부르심 앞에 저는 이전의 삶은 모두 뒤로 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목회자로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말씀 전하는 자로 살겠노라고 다짐하였습니다.

주님은 인허식을 통해 말씀 전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했던 마음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이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강도권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무엇보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말씀에 전문가가 되어야겠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노력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또 배운 대로 설교를 잘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



김진하 영아부담당전도사
gracesummer8585@gmail.com



제 막 예배에 나와 적응하느라 울며불며 엄마를 찾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단시간에 예배 분위기에 적응하고 멋진 예배자로 세워져 갔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며 더 큰 영적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작은 성도들을 바른 말씀으로 세워가야겠다는 거룩한 부담감이었습니다.

매주 예배에 이어 여름성경학교, 여름캠프, 세빛교실을 거쳐가며 많은 선생님과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때서야 아이들의 예배 태도, 믿음의 모습들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는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의 신앙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난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갓 돌 지난 아이를 예배자로 세우겠다고 다짐하며 영아부에 자녀를 보내시는 부모님들의 믿음의 결단과, 비록 어린아이이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양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섬기시는 선생님들로 인해 영아부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지한 모습으로 서는 성도님들을 만난 것이 제게 참 큰 복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교회의 사역을 마무리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던 6월, 하나님께서는 열린교회로 저의 걸음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안주하지 않고 은혜의 자리에 성도들과 함께 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 저를 깨우치십니다. 열린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이때에 저는 더욱 기대합니다. 앞으로 더욱 선하게 저와 우리 영아부 공동체와 열린교회를 이끌어가실 주님을 말입니다. 분명 주님께서 이 전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십자가 복음 앞에 바로 선교회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 가슴 벅찬 자리에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맡겨주신 작은 성도들을 위해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



최영광 사랑부담당강도사
ykko5707@gmail.com



가 되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그 누구도 진리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선 나를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부르셨지만, 아직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저의 교만한 모습을 봅니다. 또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저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설교를 듣는 지체들의 얼굴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이 부족한 자의 설교를 기다리며 듣고 싶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들에게 아무렇게나 준비한 설교를 들려주고 싶진 않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살리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의 수고가 아닌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길 원합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의 그 첫마음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회와 공동체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설교자가 되어야겠다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짐해 봅니다. ☆

추천도서

섭리의 신비

존 플라벨(박문재 역)/CH북스



1678년에 처음 출판된 『섭리의 신비』는 시편 57:2에 대한 강해집이다. 이 책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관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플라벨의 주된 관심사는 독자들에게 섭리 교리에 대한 실천적이고 목회적인 강조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에 전율하면서 온 마음을 다 바쳐서 글을 쓴다. 그는 교회사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행하시는 역사들에 대해서 알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알고,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안다. 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불신앙의 회의주의는 물론이고 과장된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개인적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분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의 글의 목적은 사람을 낫추고 하나님을 높이면서도, 하나님의 모든 자녀의 마음속에 믿음과 경배의 뜨거운 불을 점화시키는 것이다. 존 플라벨의 개인지도 하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이 전에는 한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영역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CH북스블로그)

새가족

▶▶ 장년

김준호(87) 유예림(97)
박소영(88) 강은석(90)
김해자(50) 이신애(92))
노미희(63) 원경림(71)
김진남(56) 이유순(79)
김미연(69) 김연희(72)
방부강(78) 라희성(92)

▶▶ 청년

고재균(81)
정아름(98)
최성제(93)
최연수(99)



직장인선교세미나 후기

행복할 수 있는 이유



강순영 장년5교구
flatway@daum.net



이번 직장선교세미나 강사로 오신 한정원 선생님은 웃으시며 자신의 삶을 나눠주셨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의 나날들은 있고 남들이 이해한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자기 몫의 어려움이 있다. 간증을 들으며 직장인 선교세미나라기 보다는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런 삶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인생이 참 행복하구나, 하며 미소지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모든 사람들은 평범한 삶을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삶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선생님은 운동을 좋아하고 잘했기에 체육교사라는 목표를 가지고 대학에 진학했고 순조롭게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교사로서 아이들과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길이 빨리 오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물론 주변 사람들도 선생님이 한 번에 임용고시를 통과하고 교사가 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온다. 선생님에게도 자신 있었던 임용고시를 5번이나 봐야 했던 실패와 도전의 순간들이 찾아왔다. 그 시간들 속에서 얼마나 많이 울고 좌절했을까?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셨다. 주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다. 세상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이상한 현상일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기에...

결혼하고 임신 중에 임용고시 합격을 했고 너무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하셨다고 했다. 그렇게 학교생활을 하던 중 교사들 40여 명과 연수를 다녀오다가 다른 선생님들을 다 챙기고 마지막으로 건넌목을 건너는 순간 교통사고가 났고 생사를 오가며 몇 시간을 지낸 다음에 결국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만 하는 일이 생겼단다. 체육교사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 선생님은 그 아픈 시간들을 지내며 불편한 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아시안 게임에서 어제 돌아오셨다며 우리 앞에서 웃으며 이런 일들을 담담하게 얘기하고 계셨다.

절단 이후 재활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 아이들과 즐겁게 생활하면서 또 하나의 꿈을 만들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 싶다는 생각에 농구, 조정, 골프 등 많은 종목에 도전하고 각종 대회에서 메달도 목에 거셨다고 한다.(다리에 무리가 가면 다른 종목으로 또 무리가 가면 다른 종목으로 바꾸셨다는데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면 저런 의지를 주셨을까?’ 할 정도로 대단한 분이셨다.)

요즘 학교에서 종교 관련으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은 제한이 많다고 하였고 예전에도 자신이 전도를 해본 적은 딱 한 번이라고도 하셨다. 그러나 직접적인 전도가 아니어도 아이들은 선생님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저렇게 선생님을 행복하게 하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기에 충분히 보였다. “내 뒤에 후광이 비치지 않니? 누가 계시잖아, 안보이니?”라는 말도 아이들에게 하신단다.

직장생활이 아니더라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는 행복하며 아파하며, 나의 문제로 힘들어하며 또 이겨내며 살아간다. 이순간 어려움 속에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 보자는 생각을 했다. 어려움 속에서도 무언가로 인해 저 사람이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보자. 주님의 자녀에겐 자신의 목표는 중요치 않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가 궁금할 뿐이다. 그것이 진정 행복한 삶이리라. 선생님의 아픔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과 위로받음에 감사하는 것처럼... ☆

양육교사훈련학교 후기

예수 사랑 흘러가는 통로 되기를

양육교사 훈련학교에서의 5주는 주님께서 저의 연약한 믿음을 그분의 은혜로 채우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독교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저는 부끄럽게도, 열린교회에 오기 전까지 성경 말씀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연단의 삶 가운데 우리 가족 안에 지속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제가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열린교회에 와서 성장반, 구역모임, 목양팀에서의 말씀 공부와 양육교사 훈련학교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본래 질서를 저의 전인격으로 인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처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예배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말씀의 은혜가 제 삶에 스며드는 것을 생생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양육교사 훈련학교 과정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전도사님의 권면 때문이었습니다. 마침 목양팀 섬김을 시작했던 터라 어떻게 하면 앞으로 목양팀 안에서 새신자를 잘 섬길 수 있을지에 대해 자세히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매주 교육 과정에 참여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는 새신자를 양육하



최지형 장년4교구
jhndsj@nate.com



는 일에 앞서 제가 말씀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귀한 영혼을 섬기기 위한 도구로 저를 준비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제 삶에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5주간의 교육을 게을리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예비하신 일용할 양식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떨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에게 받은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 변명만 늘어놓았던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제 믿음을 지키는 일에 급급하게 살아온 저에게 그리스도의 지체인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졌습니다. 부족한 나를 참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영혼이 넘어지도록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했던 과거의 지점, 그 지점들을 거쳐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의 부족한 믿음이 쓰러지지 않도록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합한 만나를 내려 저를 일으켜주셨다는 은혜의 자각이 마음 가득히 밀려왔습니다. ‘내가 주님께로 향하지 않았던 많은 날에도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셨고, 마침내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은 메마른 제 마음을 물

곰곰이 생각

기도 없이는

글·그림: 나동훈
gomgom2@designzip.co.kr

우리는 얻을 수 없는 ‘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 없이는’ 얻을 수 없는 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빼앗길 수 있는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 없이는’ 빼앗길 수 있는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룰 수 없는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 없이는’ 이룰 수 없는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생길 수 없는 ‘마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 없이는’ 생길 수 없는 마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제게 ‘기도 없이 살려는 마음’만은 허락하지 마옵소서.

덴 동산으로 회복시키시는 체험이었습니다.

양육교사 훈련학교 과정을 수료한 요즘, 제 삶에 작은 변화 생겼습니다. 저를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자로 빛으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아직도 때때로 게으른 본성이 순종하기로 결단한 마음을 흐릿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말씀의 은혜와 예배의 감격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저의 삶을 온전히 둘러싸기를 간구하며 하루하루 경건 생활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님,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세요. 저의 작은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열린교회의 작은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성도가 되게해주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만남 품은 열린교인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가장 보람 있습니다

김석현 장년1교구
seokhyun.kim.78@gmail.com



저는 대학생 시절에 열린교회에서 믿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도 몇 번 전도를 해주신 분들이 있었지만 말씀이 다가오질 않았습니니다. 이과생으로서 무신론자였기에 신의 존재를 전제로 한 성경 말씀을 거부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계기로 모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성경공부를 하다가 처음으로 말씀을 통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16~22절을 보면 가인의 자손들이 문명을 일으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인류가 여러 모양으로 문명을 만들고 살아가지만 신앙의 측면에서는 믿는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누어진다는 생각이, 마치 영혼 깊은 곳을 때리고 지나가는 것처럼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깨달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일 이후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었고, 지인의 인도를 통해 열린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왔지만 기독교에 대한 배경지식이 전무했던 저는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3년 정도 주일예배만 간신히 참석했지만 회심하지 못하였습니다. 믿음이 없었고 지체들과의 괴리감은 점점 더 커지고 더 이상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수련회에서 스테프로 한 번 섬기고 변화가 없다면 교회를 영원히 떠날 생각으로 참석하였습니다. 2002년 수련회였습니다. 그 때 저녁 집회는 <시험과 유혹이김의 교리>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제가 얼마나 쉽게 죄에 빠지는 사람인지 깊이 돌아보게 되었고 선포되는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수련회 기간에 복음을 깊이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서 진심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후 2008년도에 결혼하고 영적으로 침체되었다가 회복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직장생활과 어린 자녀들 때문에 개인경건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없었던 당시에, 열린교회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읽는 경건 칼럼과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통해 잔잔한 은혜를 경험하며 조금씩 회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했지만 좋은 지체들과 교역자분들의 목양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이후 회사를 다니다가 좋은 기회가 생겨서 2015년에 미국 회사에 취업하여 미국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주로 지내면서 5년 정도 살았고 다시 한번 예기치 않게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2020년에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는 코로나가 심했던 시기라서 오랫동안 집에서 일하고 예배를 드리곤 했었지요.) 지면의 한계 때문에 자세히 적을 수는 없지만 미국 회사의 문화와 일하는 방식은 한국과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 어린 나이에 건너가거나 대학, 대학원을 통해서 미국으로 가는 경우가 보통인데, 저는 바로 회사로 가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문화적인 충격은 정말 상당했습니다. 6개월은 그저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1년 지나서야 조금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외국인으로서 미국에서 아이들을 학교에서 보내고 학부모들과 어울리고 하는 모든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잘 지내려면 아무도 다가오지 않아도 먼저 다가가고 반응이 없어도 기죽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고 하는 것을 잘 해야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일상적으로 한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가정을 붙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홀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할 때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이 큰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도 컸습니다. 의지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뿐이시니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이 눈물로 기도할 수 있었고 그럴 때마다 하루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위로가 함께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의 일이었습니다. 직장에 출근했는데 문득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도 나는 구원받은 신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즐거워할 것이고 이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나 자신한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니 울컥하고 눈물이 흘러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 봐 몰래 눈물을 닦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20대에 열린교회에 와서 이제 4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이 될 때 교회에 와서 하는 섬김기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깊으신 분들처럼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서울에서 오기 때문에 퇴근 시간에 오고 가는 길이 편하지는 않지만 전혀 힘들게 느껴지지 않아서 저도 좀 신기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삶의 분주함은 똑같지만 그렇게 교회에 와서 저 자신과 가족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언젠가부터 제 삶을 붙잡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세상에서의 성취가 아니고 어떤 일을 하건 그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고 그러한 우리를 보며 세상은 하나님을 느끼리라 확신합니다. 이것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있을까요? 잘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따르고 높이며 그분 안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귀한 사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다시 와서 열린신문에 간증을 쓰기로 편집부에 약속하고 미국에 갔었는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김남준
사무장로	김남근 김기현 박정갑 금성철 황철호 김대영 박기준 김용연 성경열 김춘경 이영춘
은퇴장로	임두순 이대환 김희철 박찬동 김원호
부목사	박재현 김동기 박철웅 이성도 최성기 류요한 권경철 명성인 김태영 손하람
협동목사	정창욱
강도사	김진산 최영광
전도사	곽혜정 조희숙 정경아 최선미 김현희 김미영 박숙현 양승희 이지연 이월순 김민성 김진하 이두호 조일권
교육전도사	이해선 김태훈 권세원

파송선교사

A국: 4 units / B국: 1 unit / C국: 1 unit

말레이시아: 양선우 & 전혜림

에스와티니: 황아론 & 양진영 / 박현철 & 박상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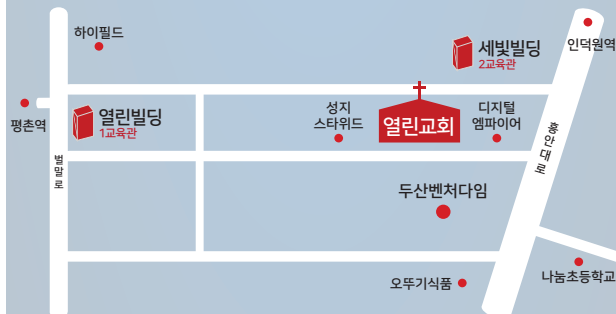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신동진 & 정지현

국내 디아스포라: 정진학 & 손원항

예배시간 안내

	구분	시간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본관 3층 예배실)
	2부	오전 10시 (본관 3층 예배실)
	3부	오후 12시 (본관 3층 예배실)
	4부	오후 2시 (본관 3층 예배실)
교회학교	영아부	오전 10시 / 12시 (별관 1층 교육실2)
	유아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2층 교육실1)
	유치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3층 교육실2)
	유년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2층 교육실3)
	초등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2층 교육실4)
	소년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1층 교육실2)
	중등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1층 교육실1)
	고등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4층 교육실3)
새벽기도	1부	오전 5시 (별관 1층 교육실2)
	2부	오전 6시 (본관 3층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본관 3층 예배실)
수요섬김기도		오전 10시 30분 (본관 1층 예배실)
시편기도회		금요일 오후 8시 (본관 3층 예배실)
백향목공동체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1층 예배실)
중국인예배 中国人礼拜		오전 11시 30분 (세빛빌딩 5층 중국실) 上午 11时 30分 (世光大厦 5层 中文室)
하요전도기도회		오전 10시 (본관 1층 예배실)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4번출구)에서 버스 환승하거나
평촌역(3번출구)에서 20분 정도 걸어오시면 됩니다



칠흙의 어둠 속에서 실낱같은 빛은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열린교회